

부동산가격 하락 속 금융권 '대출 문턱' 높여 ... 잔금 조달 어려워져

## 경매물건 10%가 낙찰 포기

광주·전남 부동산 3천건 재경매 사상 최대

11월중 법원 몰수된 보증금만 8억여원 달해

부동산경기 침체와 불황 등의 여파로 올 들어 낙찰을 받고도 잔금납부를 포기하는 광주·전남의 부동산 재경매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낙찰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쳐진 주택·상가·토지물건이 3천3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경매건수(3만7천202건)

의 8.2% 수준으로, 광주·전남의 법원 경매에서 재경매 비중이 3%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광주·전남에서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물건 10개중 1개는 낙찰이 되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불건별로는 토지의 재경매 비중이 10.6%에 달했으며, 주택과 상가의 재경매는 각각 4.8%, 4.5%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재경매 비중은 시장 침체로 부동산값 하락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역 투자자들은 금융권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경매 잔금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낮추으

로써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 ■ 올해 광주·전남 법원 경매 진행 건수 및 재경매 현황

	진행 건수	재경매 건수	재경매 비중
토지	21,841	2,306	10.6%
주택	12,282	588	4.8%
상가	3,079	137	4.5%

(자료:지지옥션)

또 일부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임대차 관련 권리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은 주택거래 금감으로 인해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사할 계획

을 잡고 살던 집을 내놓은 뒤 아파트

를 낙찰을 받았다가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납부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 몰수되는 투자자들의 보증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매는 응찰 때 보증금 10%를 낸

뒤 낙찰이 되면 45일 내에 나머지 잔금 90%를 내야 한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은 몰수되고 경매 물건은 다시 경매 기일을 잡아 재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의 경우 11월 한 달간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잔금을 내지 못해 몰수된 보증금은 8억3천695만원에 이른다.

불건별로는 상가의 보증금 손해 규모가 3억6천6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2억4천40만원), 토지(2억2천958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광주·전남의 재경매가 급증한 것은 잔금을 내는 시점에 더 산 매물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부동산가격 하락기에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두고 낙찰가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호주 '올해의 미니밴'

### 기아차 '카렌스' 선정



를 시작한 카렌스는 지금까지 720대가 판매됐으며, 기아차는 카렌스와 카니발로 호주 미니밴 시장에서 3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드라이브닷컴은 호주의 대표적인 언론사 그룹인 패어팩스 미디어그룹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로, 신차는 물론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모델을 평가대상으로 매년 최우수 차 1개 모델과 차급별 최고 차 13개 모델 등을 선정하고 올해의 자동차상을 수여한다.

한편 카렌스는 지난 11월 미국 자동차구매가이드 웹사이트인 '컨슈머가이드 오토모티브'가 발표한 '2009 최우수 추천차'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호주시장에 판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光銀, 中企 '하이클러스터론' 인기

출시 3개월만에 103건 561억 대출

광주은행이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을 위해 출시한 특화 상품인 '하이클러스터론'에 대한 반응이 좋다.

11월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역 산단 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대출해주는 기업 특화 상품인 '하이클러스터론'은 지난 8월 1일 출시한 후 이날 현재까지 실적을 집계한 결과 103건에 561억원이 대출됐다.

종전에는 토지분양자금, 공장신축 자금, 설비자금, 원자재 구입자금, 초기 운전자금 등 각 자금을 소요 시기별로 구분해 대출해줬으나 하이클러스터론은 토지분양자금부터 초기운전자금까지 원스톱 방식으로 한꺼번에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창업 직후 초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하남산단·평동산단·대불산단·광양산단 등 특화산단으로 지정한 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등 혜택이 배가된다.

광주은행은 관계자는 "4개월여만

에 하이클러스터론 대출이 5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하이클러스터론 대출을 더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금융시장 '트리플 강세' 화답

금통위, 기준금리 사상 최저 인하 효과

코스피 상승세 유지 ... 채권·환율 급락

11일 한국은행의 과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주식·채권·환화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56포인트(0.75%) 오른 1,154.43으로 마감해 5거래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도 4.34포인트(1.34%) 상승한 328.49로 5일 연속 상승했다.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인하폭이 기대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초강세를 보였다.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선 등시만기일) 맞아 장중 등락을 보이면서도 기관 주도의 매수세와 미국 증시 상승에 강도 높은 통화 완화 정책까지 기세하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인하폭이 기대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초강세를 보였다.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내린 연

4.44%로 마감했으며, 3년 만기 국

고채 금리는 0.20%포인트 떨어진 연 4.01%로 3%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기대감으로 5일째 급락해 1,350원대로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5.30원 떨어진 1,35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과격적인 행보에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식과 채권, 환율 등 금융시장 전반에 강하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자매결연 마을 '일손 돋기' 지원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장승우)는 11일 여수시 돌산읍 대을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일손 돋기 등 다양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대을마을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포장재에 '2012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자매결연 마을'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게 된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내년 中企 정책금융 70% 상반기 집행"

### 홍석우 중기청장 밝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1일 "내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과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금융위기에 대

응하고자 정책금융 지원역량을 집중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청장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

어주고자 이중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벤처투자의 경우 관련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홍 청장은 이에 따라 이날 금융지

과 보증공급 등 정책금융의 규모가 모두 670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이 4조원, 신용보증지원 570원, 벤처투자 3천억원, 회사채 발행지원 2조1천억원, 어음·매출채권보증인수는 4조3천억원 등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

어주고자 이중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벤처투자의 경우 관련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홍 청장은 이에 따라 이날 금융지

원위원회에서 은행들에 신용보증서 부대출과 대리대출을 신속히 해달라

고 요청하는 한편 최근 중소기업이 은행창구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261건의 사체

업자 조사를 벌여 363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기업어음을 수

집, 할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을 탈

루한 뒤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역설업, 건설업 등 다른 일을 하면서

형성한 자금으로 미등록 사체업을 하

는 사례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

추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매투자상담/권리분석  
수익성분석  
금융, 세무상담



인베스트 경매컨설팅

문/의/전/화  
062)236-09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5-10 2층 (법원정문 앞)

전문법률 상담

변호사 나봉수

직원 모집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실분을 모십니다.(남/여)

▶아파트

소재지	면적	층	면적비	감정가	최저가	비고
본래동 현진아파트	7층	59	3억2천	2억2400만		
농성동 증축	7층	31	9천300만	5천150만		
운암동 우미	9					